■ 민족문화연구 제99호(2023.05.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095-119.
http://doi.org/10.17948/kcs.2023..99.095

【 특집 : 한국 근대의 지식 문화 탐색과 한국학 영문 사전 편찬 】

한국학 백과사전 기반 영문 사전 편찬을 위한 국문 원고 교열의 개념과 실제*

장경식(張景植)**

목 차

1. 머리말
2. 선행 연구와 관련 개념 검토
3. 한국학 사전의 국문 교열을 위한 몇 가지 전제 조건
4. 국문 교열을 위한 기준으로서의 표준독자
5. 국문 교열의 기준과 실제
6. 맺는 말

국문초록

이 글은 『한국 근대 간행물 영문 사전』의 편찬 사례를 바탕으로, 국문 원고 교열의 개념과 실제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기존의 한국학 백과사전을 외국인을 대상으로 번역할 때에는, 한국에 대한 배경지식이 제한된 외국인 독자의 관점을 기준으로 항목 내용에 포함된 정보를 쉽게 풀어주어야 하고, 주요 고유명사에 대한 풀이가 더해져야 하며, 영어로 번역이 용이하도록 문장 구조를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을 담당하는 것이 국문 원고 교열의 단계이다.

이 연구에서는 독립된 편찬 단계로 신설된 국문 원고 교열 단계에서 참고해야 할 관련 정보를 살펴보고, 국문 교열의 실제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정리했다.

우선 『한국 근대 간행물 영문 사전』의 주요 독자로 상정한 해외 한국학 전공자와 연구자의 배경지식을 살펴본바, 영미권 독자의 한국학 관련 지식은 중국학과 일본학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한국학국영문사전 편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21-CKD-123002).
** 한국백과사전연구소 소장.

중심으로 구축되어 온 동아시아의 학문적 지형에 따라 대단히 부족한 상태임을 확인했다.

저본과의 일치성 문제에 대하여, 한국학의 번역과 관련한 상위 개념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화번역'에 대해 검토하고, 문화권 사이의 정치적 위계를 극복하려는 개념적 도구로 이를 받아들여, 한국어 원전의 문장에 고착되지 않고 교열자의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교열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이러한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 근대 간행물 영문 사전』에서는 집필과 윤문, 번역과 교정 등 편찬의 모든 과정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할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표준 독자의 수준을 정하고, 국문 교열에 있어 저본에 바탕을 두되 이용자의 문화적 배경에서 한국학에 대한 수용이 가능하도록 창조적인 변용이 필요함을 사례를 들어서 제시했다.

주제어: 한국학, 백과사전, 외국인 독자, 영문 한국학 사전, 사전 편찬, 원고 교열.

1. 머리말

이 글은 영문 사전 편찬을 위한 국문 원고 교열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문헌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은 영문 번역자에 의해 수행된다. 따라서 한국의 문헌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는 일은 대체로 번역자에게, 때로는 한국 문헌을 바탕으로 영문 원고를 집필하는 집필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었다.

그런 가운데 『한국 근대 간행물 영문 사전』 사업에서 한국학 사전 항목을 기반으로 영문 사전을 개발하는 과정에 국문 교열의 단계가 추가되었다. 영문 사전이 겨냥하는 독자층에 비추어, 주된 저본이 되는 『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항목이 담고 있는 정보의 수준과 깊이에 있어 무리가 있다는 점,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문화적 배경과 영문 사전 독자의 문화적 배경 차이에 따른 '문화번역'의 개념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영문 번역자에게 이 모든 작업을 맡기는 것은 사실상 작업의 진척이 불가능할 정도의 부담을 주는 일이라는 점 등이 그 주된 이유였다. 이에 따라 영문 번역을 위한 국문 저본을 만드는 국문 교열 과정이 신설되었다.

이 글에서는 해외 한국학 전공자와 연구자를 위한 이용자 중심의 영문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 점검해야 할, 사전학과 번역학 범주의 경계에 걸치는 국문

교열 작업의 의의와 방향에 대해 짚어보고, 한국 근대 간행물 영문 사전 편찬 사례를 통해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1)]

2. 선행 연구와 관련 개념 검토

한국 문헌의 영문 번역을 위한 국문 교열 원고를 작성하는 과정 자체가 대단히 드문 사례인 까닭에, 선행 연구 결과는 매우 찾기 어렵다. 드물게 『한국 근대 간행물 영문 사전』에 대한 현황과 쟁점을 논의하는 가운데 번역을 위한 전제로 국문 원고의 필요성을 제기한 도원영 외[2)]는, 이 사전의 독자를 해외 한국학 전공 학부생으로 간주하고, 어려운 개념어로 기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배경과 맥락을 전제로 집필되어 있는 한국학 사전의 텍스트 수준을 감안하여, 이용자의 지식수준과 한국학에 대한 이해 수준에 적합하도록 국문 원고 작성 과정을 두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 외에 외국의 사용자를 위한 번역 과정을 전제로 한 국문 교열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논의의 범주를 넓혀, 국문 교열이라는 작업이 출발어로서의 한국어와 도착어로서의 영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번역 작업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제한된 목적의 선행 단계라는 점에서, '한국학의 영어 번역'이라는 상위 개념의 여러 논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한국학 영문 번역 및 교열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아래의 몇 갈래로 구분된다.

첫째, 한국학의 해외 소개에 대한 거시적 지형 연구가 있다.

번역은 기본적으로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서 원어의 메시지를 다른 언어로 가장 가깝고 자연스러운 등가로 재생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3)] 한국학의 번역 역시 발신자와 수신자의 두 차원을 전제로 이루어지며, 발신자는 한국의 학계, 수신자는 해외의 학계나 사용자로 상정될 것이다. 같은 텍스트라

---

1) 논문 심사과정에서 이 논문의 방향과 구조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이켜 볼 기회를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심사 의견에 따라 최대한 논문을 수정했음에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후속 논문을 통해 보강하려고 한다.

2) 도원영 외, 「해외 한국학 전공자를 위한 한국학 영문 사전 편찬의 쟁점」, 『어문논집』 96, 민족어문학회, 183-184면.

3) 김효중, 『번역학』, 민음사, 1998, 19면.

하더라도 배경지식의 차이에 따라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할 때, 한국인을 대상으로 생산된 한국학의 텍스트를 번역이라는 과정을 통해 등가로 재생산했을 경우 배경지식에서 차이가 있을 영어 사용자에게 어떻게 전달될 것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수신자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 학계에서 한국에 대한 기본 지식이 어떤 지형으로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해외 한국학 연구의 발전단계를 바탕으로 한국학과 관련된 개념과 용어가 해외에 어떻게 소개되었는가를 살펴보는 연구이다.[4]

김준길[5]은 전근대의 중국학과 일본학 중심으로 발달한 동아시아 연구의 확장으로 20세기 들어 진행된 한국학 연구, 특히 미국의 동아시아학에서 한국에 대한 연구사를 검토하면서,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고대사 기원론을 바탕으로 씌어진 에드윈 라이샤워(EdwinReischauer)와 존 페어뱅크((John Fairbank)의 공저 『동아시아, 전통과 번혁: 개정판(East Asia, Tradition and Transtormation, Revised Edition)』(1989), 이와는 대척점에서 10세기 이전에 한국과 일본, 베트남이 독립 국가로 발달하면서 중국과 가졌던 새로운 외교관계에 주목한 찰스 홀컴브(CharlesHolcombe)의 『동아시아의 창세기: 기원전 221~기원후 907(The Genesis of East Asia: 221 B.C ~ A.D 907)』(2001) 등이 최근 영미권 동아시아 인식의 기본 맥락을 이루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미국의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다루는 동아시아에 대한 기존 용어와 개념의 바탕이 대체로 이 두 저작에 기반하고 있음을 밝힌 이 연구는 잠재적 독자층인 해외의 한국학 연구자가 학습했을 동아시아와 한국에 대한 배경지식의 연원과 지형을 짐작하게 해 준다.[6]

---

4) 이 글은 영어 번역을 전제로 논의하고 있으므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영미권으로 범주를 좁혀서 살펴보았다.

5) 김준길, 「한국학의 국제적 소통에 관한 한 연구—한국의 역사와 문화 관련 용어 및 개념의 영어 표현을 중심으로」, 『국제한국학연구』,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2010, 51-91면.

6) 김준길의 논지와 관련하여, 최근 영미권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있다. 2021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한국 바로 알리기'를 주제로 에세이를 공모했다. 공모작 가운데 우수상을 받은「미국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이미지」라는 에세이는 미국의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제시되는 한국 관련 정보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방증하고

있다. 아래에 이 글의 일부를 인용한다.

"미국 12년의 초중고 교과과정에서 아시아의 사회, 문화, 역사에 대해 편견 없이 배우는 주가 전체 51개 주에서 몇 개 주나 될까? 그중에서 한국에 관해서 배우는 곳은 얼마나 될까? 안타깝게도 캘리포니아, 조지아, 뉴욕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거나, 배워도 틀린 내용들을 대충 배우는 경우가 많다. (중략) [교육자로서] 미국인들이 아시안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한다면 도움이 될까 해서 아시안 역사 공부를 미국 전국에서 하기를 원하는 청원운동을 직접 시작했다. change.org에 'Asians are also American!'라고 아시안 역사를 미국 공립학교에 가르치자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시작했었다. 그러나 미국 내 교과서들에 실린 아시아 내용들, 특히 한국 관련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게 되면서 청원운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현재의 미국 교과서들로 전국 공립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된다는 판단이 들어서였다. 중국 중심의 역사, 일본 위주의 식민사관, 미국인이 대충 생각하는 한국이 미국학생들에게 전달될 내용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2021년 6월 일리노이주에서 아시안-아메리칸 역사를 공립학교에서도 가르친다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시간은 더욱 촉박해졌다. 현재는 캘리포니아주, 뉴저지주, 조지아 일부와 AP라는 대학 조기 이수과정을 듣는 일부 학생들만 배웠던 아시안 역사를, 공립학교에 다니는 전체 학생들이 점차적으로 다 배우게 된 것이다. 한국 역사의 왜곡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이나 일본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씌여진 내용의 아시안 역사 교과서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개 주에서 시작하면 다른 주들도 하게 된다. 미국 교과서 문제를 이대로 놔두면, 향후 10년 정도면 미국 51개주에서 중국과 일본 중심의 역사관, 즉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속국으로 미국 학생들이 배우게 된다.

COVID-19으로 인해 미국 전역 대부분의 초중고 학교에서 인터넷으로 집에서 수업을 진행하였다. 많은 한국 부모님들도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되면서, 아이들의 인터넷 교과서를 볼 기회가 생겼다. 미국은 교과서를 학교에서 학기마다 빌려주고, 대부분 학교에 놔두고 다닌다. 지난 일년 동안 온라인 교재로 많이 사용되며 문제가 대두된 Epic 교과서의 경우, 한국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을 찾을 수 있었다. 4살 아이가 보는 교재인데, 'Korean is the main language of South Korea'라며, 한국 아주머니들이 풀밭에서 소주를 마시는 장면을 실어 소개하였다며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웃에서 사진을 보내왔다. 이를 계기로 Epic 교과서를 주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Epic에서 나온 9-12살용으로 한국에 관한 교재를 무작위로 골라보았다. 제목은 'SOUTH KOREA IN OUR WORLD'로 Jim Pipe이라는 저자가 쓴 교과서이다. 교과서를 열자 처음 오른쪽 페이지에 에너지가 넘치는 한국의 도시를 소개하며, 쇼핑과 밤 문화가 유명한 이태원 사진을 9-12살이 보는 책에 실었다.

역사적인 사실들도 엉망이다. 한국 역사가 러시아에 정복된 적이 있었던가? 여러 군데에 틀린 역사가 너무나 많지만 지면상의 문제로 이 부분 하나만 들고 왔다. 이 지면은 전체가 다 틀렸다. Endangered Wildlife, South Korea's Buddhist temples, IT'S A FACT! 세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자. 위험에 처한 야생동물 부분에서, 멸종위기에 처하지도 않았고, 야생이 아닌 진도개를 야생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다.

'IT'S A FACT!' 내용을 보면 불교 승려들이 정원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서술하여 놓았다. 하단의 사진은 경복궁의 향원정이지만 장소명은 없고, 사실과는 다른 불교식 정원이라 소개하였다. 향원정은 세조 2년에 향원지를 조성하고, 고종때 향원정을 지어 왕과 왕족들의 휴식공간이었던 정원이다.

한국을 전혀 모르는 미국의 어린이들이 Epic 책을 통해, 한국은 몽고, 러시아, 일본에 점령을 당한 역사가 있는 나라였는데, 현대의 한국의 여성들은 풀밭에 앉아서 소주를 마시며 대화를 하고, 불교 승려들이 연못과 정원을 사랑하며, 야생개인 진도는 멸종위기에 놓여 있다고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발신자의 차원에서 한국학의 해외 소개를 위한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연구가 있다. 임명걸・이해영의 경우,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위하여, 현대문학과 고전문학 작품 번역에 대한 여러 기관과 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외의 한국학, 한국문학 학계에서는 번역 작품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7] 이 연구에서는 번역의 지원이 당대에 인기 있는 작품에 한정됨으로써 해외의 한국학, 한국문학 학계에서 가르치는 한국문학사의 정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작품군이 번역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고, 중국의 '학술담론 세계화' 전략을 사례로 들어 문학사뿐 아니라 한국학을 대표하는 저작과 작품군에서부터 번역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한도현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를 위한 제도적 변화가 우선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8]

즉, 전자에서 한국학에 대한 영미권의 관련 학계 기본 배경 지식이 대체로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나마도 실제 교육과정

2021년 일리노이주를 시작으로 미국의 공립학교들에서 아시안 역사를 배우기 시작한다. 한국 관련 틀린 내용들을 하루빨리 수정하지 않는다면, 미국 학생들이 동북공정 사상이 들어간 역사, 일본 식민지 침략 옹호 역사를 그대로 배우게 된다.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 관련 성의 없는 사진, 시대에 뒤떨어진 업데이트 안 된 자료, 사실 확인 안 된 내용들이 난무하는 교과서들이 많다. 미국 내에서 이런 한국에 관한 틀린 내용들은 발견하자마자, 한국 학부모들과 이 글을 쓰고 있는 본인도 항의와 정정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 수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역사 부분은 수정이 안 되고 있다. 사료를 제공해야 하고, 적절한 반증 자료를 제출해도 한국의 입장일 뿐이라고 일축하기도 한다. 미국 전국에서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속국이라고 배우게 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강력하게 국가적으로 항의를 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판단한다.

미국의 교과서에 나오는 한국은 내용과 사진 둘 다 매우 중요하다. 미국 교과서는 한국에 관심 없는 미국인들도 한국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미국 교과서에 나오는 한국에 대한 올바른 내용이 절대 대다수의 미국인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들 중 하나이기도 하다. 미국교과서 내용을 점검하고 올바른 내용으로 채워야 한국문화를 해외에서도 존중받을 수 있다. (…)"

에이미 JY 허친슨(Amy JY Hutchinson), 「미국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이미지」, 『2021 내가 한국 바로알리기의 주인공 에세이 공모』, 한국학중앙연구원, 2022. https://www.aks.ac.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18187&bbsId=BBSMSTR_000000000016(2023. 5. 30. 검색)

7) 임명걸・이해영,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번역과 담론 형성 연구: 중국의 '학술담론 세계화' 전략과의 비교를 통하여」, 『어문학』, 한국어문학회, 2015, 303-330면.

8) 한도현, 「한국학의 영문번역시스템과 개선 방향」, 『통번역학연구』 14-1, 한국외대 통번역연구소, 2010, 199-224면

에서는 한국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있다 하더라도 왜곡된 정보로 오염되어 있다는 현실을 알 수 있다면, 후자에서는 한국학의 해외 소개를 위한 전반적이며 총체적인 번역 담론의 결여와 제도적 미비로 인하여 체계적인 한국학 관련 번역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한국 근대 간행물 영문 사전』의 잠재적 사용자로 상정된 영미권의 한국학 관련 독자가 한국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기본적인 배경지식은 상당히 낮거나 왜곡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 내에서 집필된 한국학 텍스트가 기본적으로 한국 중심의 한국사를 배경으로 하고, 개념・인물・사건・저작 등에 대해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거쳐 학습된 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때, 영미권의 사용자는 현저하게 이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한국학의 번역'과 관련한 개념적 인식에 대한 연구가 있다.

번역의 기본은 앞에서 논의한 바, '출발어의 의미를 도착어에서 등가로 구현하는 것'이다. '등가'의 개념에 대해서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폭넓고 다양한 범주가 새롭게 제시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9] 그 가운데, 한국학의 번역, 특히 국문 교열과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할 연구로 '문화번역(cultural translation)'의 개념이 있다. '문화번역'은 번역의 본질, 또는 문화 전이의 본질을 개념화하는 담론이다. 이상빈은 호미 바바(Homi K. Bhabha)가 제시한 '문화번역'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출발어에서 도착어로의 등가적 전이를 의미했던 '번역'의 전통적인 개념을 벗어나 '문화간의 협상'이라는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10]

'문화번역'이라는 개념을 번역자의 책무로 연결시킨 논의 또한 주목할 만하다. 윤조원은 탈식민주의 문화번역의 최근 담론을 빌어,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이 일찍이 제안한 '번역가의 임무'에 주목하고 있다.[11]

---

9) "등가개념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정의내리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등가개념 자체가 번역, 텍스트, 독자의 특수성 등에 연관되어 있고, 등가 성립조건도 기준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객관적 기준이 없으므로 등가어 선정은 번역가의 선택에 달려있다." 김효중, 앞의 책, 211-212면.

10) 이상빈, 「문화번역(cultural translation)에 관한 이론적 고찰: 호미 바바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3-2, 한국통역번역학회, 2011, 93-108면.

그는 전통적인 번역 연구와 인류학의 작동 전제였던 서구와 비서구, 근대성 및 그 타자 사이의 제국주의적 정치적 위계를 해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문화번역 담론을 제시하면서, 출발어와 도착어 사이의 완전한 번역은 어렵다고 간주하고, 번역자는 이질적인 문화적 실체 사이에서 텍스트에 내포된 역사성의 의미를 전달하려는 의도를 갖고, 문화 간의 모든 형태의 문화 교류 및 의사소통 활동의 책무를 감당해야 한다고 보았다.

'문화번역'과 번역자에 대한 담론은 번역학의 여러 관점 가운데 기능주의 번역에서도 유사하게 작동된다. 라데군디스 슈톨체(Radegundis Stolze)는 번역에 대한 기능주의 성향의 이론을 소개하는 가운데, "번역하는 데에 중요한 것은 번역을 '문화 사이의 전이'로 규정하는 것"[12]이라고 말하면서, "번역사는 [출발어 사회의 문화인] R-문화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튼 가능한 한 [도착어 회의 문화인] R*에 대한 지식을 동원해서) 무엇을 어떻게 의사소통을 시켜서 의도된 정보를 가능한 한 최적의 상태로 R*에게 도착할 수 있게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것이 우리가 '번역'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13]이며, 그렇기 때문에 "번역사는 출발문화와 목표문화를 모두 알고 있어야 한다. (…) 실제 번역과정에서는 목표문화의 관습이나 규범이 사용된다. '번역하는 사람은 형편없이 써놓은 출발텍스트를 자신이 설정해놓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롭게(자기 방식대로) 글을 쓰는 것에 겁을 먹어서는 안 된다'"[14]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특히 '문화번역' 담론을 바탕으로 번역의 현장에서 강조되는 것은 '하향식 번역'인데, 이는 출발어와 도착어 사이의 표면적 등가성에 초점을 맞추었던 '상향식 번역'에 대치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되고 있다. 상향식 번역은 텍스트의 표면적 구조를 중시하여 출발어 텍스트의 구조를 되도록 유지하여

11) 윤조원, 「번역자의 책무—발터 벤야민과 문화번역」, 『영어영문학』 57-2, 한국영어영문학회, 2011, 217-235면.
12) 라데군디스 슈톨체, 임우영 외 역, 『번역이론 입문』, 한국외대 출판부, 2011, 196면.
13) 앞의 책, 196면.
14) 앞의 책, 196-197면. 인용문 안에서 작은 따옴표를 한 부분은 '문화의 의사소통 모델'을 주장했던 한스 J. 페어메어(Hans J. Vermeer)의 말이다.

도착어 텍스트의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번역을 코드의 변환과정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며, 하향식 번역은 출발어 텍스트가 의도한 기능을 먼저 결정하여 이를 도착어 텍스트에 반영하는 것으로, 의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굳이 출발어 텍스트의 구조나 언어의 소단위에 고착될 필요가 없다고 보는 번역을 의미한다. 이는 크리스티아네 노르트(Christiane Nord)의 번역과정에 착안하여 사용되는 용어로, 크리스티아네 노르트는 출발텍스트를 목표텍스트로 전이하려는 목적을 분석한 다음, 출발텍스트에서 번역에 필요한 요소를 추출하여 이를 목표텍스트로 전이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보았다.[15]

번역학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문화 능력(cultural literacy)'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장애리[16]는 통번역과 문화의 관계를 의사소통의 내용(텍스트), 주체(참여자), 결과(사회)의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면서, 구체적인 번역 과정에서 필요한 문화 능력의 하위 요소로 문화이해 능력, 문화중개 능력, 문화전이 능력을 제시했다. 그에 의하면, 문화이해 능력이란 출발어와 도착어 문화 지식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문화중개 능력은 자문화 중심적인 관점에서 탈피하여 문화차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율을 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말하며, 문화전이 능력은 비판적 통찰력과 창조적 수용력을 통해 문화를 전이하는 데 대한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이제까지 구축된 한국학 번역의 토대와 현실에 대한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창진[17]은 해외에 한국의 학문적 성과를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 수단'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한국학을 번역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용어에 대응되는 영문용어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사례로 들었다. 특히 한국어와 영어의 경우 언어 문화적 차이로 인해 단어의 등가성이 확보되기 어려우므로 대역어 사전보다 한국학 용어가 영어로 번역되는 다양한

15) 라데군디스 슈톨체, 앞의 책, 208-211면.
16) 장애리, 「통번역을 위한 문화능력—이론연구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4, 한국번역학회, 2011, 169-204면.
17) 양창진, 「한국학 자료 번역 도구로서의 한국학 영문 용어 용례 DB구축 연구」, 『인문콘텐츠』 16, 인문콘텐츠학회, 2009, 307-335면.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학계와 번역가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한국학 영문 용어 용례사전" 편찬 연구 사업이 진행되었음은 퍽 다행한 일이다.[18] 하지만 전성운[19]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학문 분야별 전문 번역가를 양성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언은 아직도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와 함께 한국 고전문학의 문학적 자산과 가치를 세계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한국 고전문학 작품과 연구 성과를 적절하고도 정확하게 번역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며, 해외에 알리기 위한 고전문학 작품을 선정하되 인류 보편의 지향 가치를 지닌 텍스트를 문헌 비평의 과정을 거쳐 확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그는 한도현의 제안과 같이 번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번역을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을 제안하면서, 작품의 강독 및 이해, 실제적 번역 및 교열, 감수를 진행하는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 번역을 위해 필요한, 교열이라는 과정에 대한 흔치 않은 선행 연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정연은 출발어와 도착어 사이의 번역 과정에서 '교열'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20] 그는 한국 문학 작품의 프랑스어 번역 사례를 들어, 한국 번역가의 예비 번역, 프랑스 원어민 번역가의 수정, 편집자의 개입 등으로 이어진 일련의 교열 과정에서, 현지 출판사에서 수행하는 마지막 단계의 편집이 텍스트의 전반적인 수정을 포함하며, 원본 텍스트의 충실한 재생산보다는 대상 언어의 가독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번역가의 원문과 출판사의 편집본의 비교를 통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와 번역가가 채택한 번역 전략의 일관성이 어떻게 파괴되어 원작의 문학적 특성이 파괴되는지를 분석한다.

---

18)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0권이 넘는 자료에서 추출한 7,000여 개의 용례를 수록하여 웹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http://digerati.aks.ac.kr:94/ 참조.

19) 전성운, 「한국 고전문학의 세계화 방안-고전문학의 번역과 그 방법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어문연구학회, 2016, 113-142면.

20) 김정연, 「출판 교정·교열에 의한 번역내용 변화의 사례연구」, 『통번역학연구』 17-3, 한국외대 통번역연구소, 2013, 81-113면.

이는 원본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하여 '교열'이라는 단계의 의미를 본질적으로 짚어보도록 요청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번역은 출발어 텍스트의 의미를 등가로 도착어 텍스트로 옮기는 작업이므로, 특히 문학 작품과 같이 내포적 의미뿐 아니라 상징과 같은 표현의 기법으로 나타나는 문학적 특성의 등가적 전이가 필요한 텍스트의 경우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교열'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는 앞에서 논의한 '문화번역' 및 '하향식 번역'과는 다른 관점에 기반하고 있다. 번역학에서 이미 창작가의 독창적인 표현이 반영된 문학텍스트의 번역에 대해서는, 자연어의 등가 기념을 적용해서는 안되며, 텍스트에 활용된 특별한 시간적, 문화적 문맥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21]하고 있음을 볼 때, 김정연이 제기한 문학작품 번역 과정에서의 교열의 문제는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학 사전의 교열의 범주와는 크게 연관이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한국학 사전의 국문 교열을 위한 몇 가지 전제 조건

앞에서 논의한바, 영어권 사용자를 위해 이루어지는 한국학 사전의 영어 번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영문 사전이 겨냥하는 독자층에 비추어 볼 때, 주된 저본이 되는 『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항목이 담고 있는 정보의 수준과 깊이에 있어 무리가 있다는 점,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문화적 배경과 영문 사전 독자의 문화적 배경 차이에 따른 '문화번역'의 개념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학 정보를 번역하는데 필요한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한국학 전문 번역가 역시 충분히 양성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집필된 한국학 사전의 번역을 번역자에게 맡기는 것은 사실상 작업의 진척이 불가능할 정도의 부담을

21) "번역등가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는 문제는 두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하나는 의미론의 특별한 문제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의미론적 내용을 원어로부터 역어로 옮기는 것을 강조하는 방향이다. 다른 하나는 문학텍스트의 등가문제이다. 문학번역가는 자연어의 등가를 설정하는 일에 관계하는 것이 아니고 인위적 과정에 관계한다. 이 과정은 절대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고, 활용된 특별한 시간적, 문화적 문맥 안에서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효중, 앞의 책, 211-212면.

주는 일이라는 점도 주된 전제 조건에 포함된다. 즉, 한국학 사전의 국문 교열 과정은, 번역의 전단계이기도 하지만, 달리 보면 '전문 번역가'가 할 일을 나누어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를 크리스티아네 노르트가 제안한 번역의 과정에 따라 적용하자면, 출발텍스트를 목표텍스트로 전이하려는 목적을 분석하고(영미권 독자에게 한국학 기본 정보 전달), 출발텍스트의 상황(한국의 문화적 배경을 전제로 집필된 데이터)에서 번역에 필요한 출발텍스트의 요소를 추출(거시구조에서는 표제어의 선정, 미시구조에서는 항목의 내용 가운데 꼭 전달하려는 정보의 추출)하여, 목표텍스트의 상황에 적합하게 구조화하는 작업(영어로 번역하기 좋도록 문장 성분을 보완하거나, 문장 구조를 개선하거나, 전문용어나 고유명사의 경우 배경 정보를 추가하는 작업)까지를 국문 교열이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위한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문 사전의 사용자가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배경 지식은 거의 없다고 간주한다. 이 연구에서 배경지식이라고 함은 한국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생활하며 초등교육 이상을 수료한 한국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주요 개념・인물・사건・저작 등에 대한 지식으로, 예컨대 삼국시대・이순신・독립운동・삼국유사 등에 대하여 한국인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의 맥락과 수준을 의미한다.

둘째, 번역에 있어 '문화번역'과 '하향식 번역'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이에 따라 국문 원고 작업 과정인 교열에 있어, 문학 작품과 달리 해당 항목이나 용어의 본질적 의미를 등가적으로 옮기는 데에 초점을 두되, 개별 문장이나 단락의 구조에 구애받지 않는다. 또한 배경지식이 없는 사용자를 위하여, 원문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충 정보를 보강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셋째, 영어 번역을 위한 저본으로서의 교열을 전제로 작업한다. 주된 저본인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항목 원고가 주로 대학원생 이상의 사용자를 위한 학술적 문장으로 집필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체로 중문과 복문의 복잡한 문장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원문의 인용과 어려운 개념어 등 번역하기 어려운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많은 경우 주어가 생략되어 한국인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음을 전제로, 국문 원고 교열 작업에서 번역자의 편의를 위해 문장 구조를 단순하게 고치고, 누락된 문장 성분을 넣는다.

4. 국문 교열을 위한 기준으로서의 표준독자

1) 표준독자의 개념

편찬 과정에서 작업의 일관성을 위한 개념적 기준으로 표준독자를 상정할 필요가 있다. 백과사전과 사전학에서 독자에 대한 원론적인 중요성은 간혹 언급되고 있으나, 좀 더 발전되거나 구체적인 논의와 방법론에 대한 선행 연구나 실천적인 사례는 매우 드물다. 특히 교육/학습/가정용 백과사전을 제외하고는 독자 개념이 편찬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찾아보기 어렵다. 장경식[22]은 사전의 주된 이용자를 예상하고 한정하는 일은 사전 편찬 기획에서 필수적인 과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용자가 궁금해하는 표제어 정보가 수록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지식수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정보가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트만(Reinhard R.K. Hartmann)은 그가 엮은 『사전편찬의 원리와 실제』에서 “최근 경향에 따라 사전 편찬자의 작업상의 문제보다는 사전사용자들의 잡다한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요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라고 사용자의 중요성을 반복해 강조하면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 무엇을 위한 사전인가 하는 문제는 사전 편찬의 오랜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질문을 받아 왔던 것이다. 사무엘 존슨은 1747년 그러한 질문을 받고 “사전 작업의 의의는 그 사전 이용에 의해 평가받아야 한다. 하나의 사전이 그 사전 사용자나 학습자를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 사전은 비평가들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교훈적인 말을 남겼다.[23]

22) 장경식, 「백과사전의 독자」, 『한국사전학회 제35차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사전학회, 2019, 25-42면.
23) 하트만, 서태길 외 역. 「서문」, 『사전 편찬의 원리와 실제』, 제이앤시, 2008, 13면.

하트만이 총론에 해당하는 제1장에서 사용자의 효용을 강조한 까닭은, 아마도 사전학과 사전편찬 사이의 미묘한 경계, 즉 생산자가 생산자의 형식 논리에 치중하다 보면 정작 사용자의 편의성이나 효용성이 간과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이와 함께 서문에서 사전편찬에 있어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주요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1. 기록(recoding). 사전 편집의 기초를 이루는 단어 묶음을 모으고 처리하면서 그 한계를 다루는 복잡한 활동. 코퍼스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것뿐 아니라 그 특성이나 규모를 결정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2. 기술(description). 특정 사용자 그룹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코퍼스에 있는 언어재를 구조화하고 특화하는 데 관련한 운용의 영역. 수집된 단어 저장소에서 가져온 어휘 목록들은 충분하지 않더라도 어떤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분석되고 선택적으로 배열되어야 한다.
3. 제시(presentation). 사전이 계획된 바에 따라 타깃이 되는 대중의 요구를 다룰 수 있도록, 출판을 위해 수집하고, 선정하고, 처리해 온 언어재의 준비."[24]

그가 제시한 요소에는 '특정 사용자 그룹', '타깃이 되는 대중의 요구' 등 독자/사용자를 의식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전의 기술(description)과 제시(presentation)의 과정에서 특정 사용자 그룹, 또는 타깃이 되는 대중의 요구를 다룰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분석되고 선택적으로 배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표준독자' 개념은 바로 하트만이 말하는 '특정 사용자 그룹'을 정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표준독자 개념이 단순히 독자를 전제로 한 사전의 막연한 효용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하트만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편찬 과정에서, 표준독자 개념은 편찬 단계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의 실무적 기준으로 작동하게 되기 때문이다.

"백과사전에 있어서도 이런 정황은 다르지 않다. 어떤 상황에서든 편찬에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이 무제한으로, 시간의 구애 없이 제공되는 경우는 없다. 규모가

24) 하트만, 앞의 책, vii면.

>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보편적인 백과사전은 한계가 있는 단일 상품이며, 가능한 표적 마케팅을 해야 하는 상품군에 속한다. 이에 따라 시장/사용자 층을 세분해야 하고, 그 세분한 시장/사용자 층의 매력도를 평가하여 가장 효율이 높은 시장/사용자 층을 선정해야 하며, 그 시장/사용자 층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분명한 차별성과 가치를 찾아내어야 한다.
>
> 그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시장/독자/사용자 층을 특정화해야 한다. 여기에는 지리적 특성, 인구통계적 특성, 심리적 특성, 행동적 특성 등이 포함된다. 그 결과로 대략의 거주지역과 형태, 연령과 성별, 가족, 소득, 직업, 교육수준, 라이프스타일, 독서 성향, 배경 지식 정도, 다른 매체나 백과에 노출된 정도 등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표준 독자'라고 흔히 지칭한다. 이 표준 독자를 전제로 새로 만들 백과사전이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가치를 정하고, 그에 따르는 백과의 규모, 거시구조와 미시구조를 구성할 수 있게 되며, 항목의 선정 기준, 항목 기술의 난이도, 문체의 일관성 등을 조율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백과사전 편찬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야 하며, 그래서 그 결과를 모두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의 목표와 과정에 대한 이해가 구성원간에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구체적인 지침으로 제시될 때, 백과사전 편찬 작업의 나머지 공정의 효율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25]

즉, 표준독자 개념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대단히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목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반인 모두가 읽을 수 있는 사전'이라고 지침을 정할 경우, 그 사전에 참여한 주체들인 다수의 기획자, 필자, 번역자, 편집자는 각각 다른 대상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는 서로 다른 수준의, 서로 다른 문체와 어휘로 이루어진, 일관성을 상실한 항목들의 집합이 만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 모두'를 말할 때에는, 그중 가장 중심에 속하는 어떤 특정 그룹을 상정하고, 그 특정 그룹의 배경지식을 전제로 작업을 해야 일관성이 확보될 것이다.[26] 아래 글은 실제 사전의 편찬단계에서 표준독자의

25) 장경식, 앞의 글, 35-36면.

26) '표준독자'의 층을 아주 좁게 잡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 오해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포괄적인 표현인 '학생들'이라고 표준독자를 정할 경우 어떤 결과물이 생성될 것인지를 상상할 수 있다. 다수의 필자나 역자, 편집자들이 이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어떤 항목들은 초등학교 수준으로, 어떤 항목들은 대학교 수준으로 완성될 것이다. 이들은 각자 스스로 서로 다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배경 지식 기준을 통일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준독자'의 구체적 기준을 좁혀서 설정하는 것은, 사전의 거시구조와 미시구조의 일관성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설정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백과사전의 편찬단계는 항목의 선정, 필자의 선정, 원고의 교열과 교정, 인덱스와 같은 부가 정보 작업 등으로 진행된다. 백과사전은 다양한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다양한 성향을 가진 학자와 전문가들에 의해 보통 집필된다. 이들의 문제는, 이들이 독자의 성향과 배경을 아는 미디어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과 사례를 제시하지 않으면 백과사전의 내용을 어떤 수준으로 써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다양한 성향과 전문성을 가진 필자들에게 구체적 지침이 없이 원고 집필을 요청할 경우,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편차를 갖고 있는 원고들의 더미로 남게 되며, 그 모든 것이 필자에 의해 재작업이 되거나, 편집자에 의해 리라이팅 되는 사태로 나타난다. 그 과정에서 필자와의 분쟁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획단계에서 상정한 표준 독자라는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다. 백과사전의 항목 선정, 항목 서술의 수준, 전문성의 정도 등을 모두 표준 독자에 맞추는 것이다. 필자에게는 원고청탁서 외에 따로 백과사전의 특징과 집필의 기준, 대상 독자의 수준 등을 적은 지침을 제시하여 사전에 이해를 구할뿐더러, 원고청탁서(일종의 집필 계약서)에도 접수한 원고의 문장을 다듬거나 양을 조절할 수 있다는 조건을 미리 밝혀서 사후의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탁 과정에서 해당 분야 항목의 표준적인 샘플을 필자에게 제공하여, 자신이 감당해야 할 문장의 기준을 실물로 참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7]

2) 국문 교열을 위한 기준으로서의 표준독자

도원영[28]에서 밝혔듯, 『한국 근대 간행물 영문 사전』은 처음부터 해외 한국학 전공 학부생을 주된 이용자로 보았다. 편집 지침에서는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정의했는데, '독자'는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환경에서 한국학 연구에 입문하는 영어권의 연구자, 또는 영어를 해득하는 비영어권의 연구자로 했고, 집필과 윤문, 번역과 교정 등 편찬의 모든 과정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할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미국에서 대학 학부에 재학 중이며, 한국학에 관심이 있고, 한국어의 해득은 초급 정도인 연구자'를 '표준독자'로 상정했다.

독자에는 전문적 과정으로 진입하는 대학원생, 연구자, 그리고 한국학과

27) 앞의 글, 36면.
28) 도원영 외, 앞의 책, 183-184면.

밀접히 관련되는 동아시아학 전공자도 포함할 수 있으며, 전공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학술 용어와 고유명에 대한 지식정보를 습득했을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기존의 용어와 서술 등이 어려운 개념어로 기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맥락을 전제로 집필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이용자의 지식수준, 한국학에 대한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표준독자를 기준으로 국문 교열 원고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문 번역을 진행하도록 했다.

5. 국문 교열의 기준과 실제

『한국 근대 간행물 영문 사전』의 편찬은 대략 다음의 단계에 따라 진행되었다.

가. 표제어의 선정
나. 저본인『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해당 항목 및 기타 자료를 바탕으로, 편찬 기준에 규정한 항목 미시구조와 분량에 맞추어 국문 1차 원고 작성
다. 국문 1차 원고를 바탕으로 표준독자에 맞추어 국문 교열 원고 작성
라. 국문 교열 원고 바탕으로 영문 1차 원고 작성
마. 영문 1차 원고 검수 및 영문 교열
바. 표기 및 부호 교정

이러한 진행 단계 가운데 '나'의 단계를 거친 결과물인 국문 1차 원고에는 아직 저본의 문체와 용어가 그대로 담겨 있는 상태이다. 이는 만일 이 상태의 원고를 모두 집대성한다면 한국인을 위한『한국 근대 간행물 사전』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 표준독자를 위한 교열 작업은 다음과 같은 교열 원칙과 교열 실무 기준에 의해 진행되었다.

1) 국문 원고 교열의 기본 원칙

(1) 독자의 관점으로 이동

앞에서 검토한 바에 따라, 한국/한국학에 대한 표준독자의 배경지식은 기본적으로 영미권의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로 지형화된

수준에 있다고 가정한다. 때로 그보다 보편적인 관점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애호가 있는 이용자가 없지 않겠지만 표준독자는 그중 가장 일반적인 수준의 독자로 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항목의 교열 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하며, 이것이 영미권 독자의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되도록 기술되어야 한다.

(2) 정보의 보완 범주

또한 표준독자는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한국학의 주요 정본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직 정본을 읽지 못한 상태로 가정한다. 이는 선행 연구 결과와 같이, 학력 수준이나 독자의 개별적 특성과 관계없이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인으로서는 기본적인 상식이어서 설명이 필요 없을 거의 모든 인명, 지명, 제도, 관습, 문화, 용어 등 거의 모든 한국 고유의 텍스트에 대해서 정보가 보완되어야 하며, 간혹 영미권과 동일한 용어가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한국 상황에서 맥락과 쓰임이 다를 경우에는 이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3) 창조적 교열의 허용

교열에 있어 '문화번역'의 개념을 반영하여, 출발어와 도착어의 문화 차이에 대하여 적극적이며 창조적으로 조율하려는 의지를 갖는다. 표준독자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전제로 한국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때로 저본에 없는 내용이 보완되거나, 단락이 추가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이럴 경우 되도록 저본의 다른 항목에 있는 정보, 혹은 저본의 담론 체계와 일관성이 있는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4) 번역 등가의 기준

위의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일반적인 번역 과정에서 바탕이 되는 출발어와 도착어 간의 평면적 등가성보다는 저본 및 국문 1차 원고의 텍스트와 교열

원고 사이의 의미적 등가성을 강조한다. 또한 문장의 구조와 어휘의 상징성이 중요한 문학 작품의 경우와 달리, 저본(원전)의 정체성과 독자성, 텍스트의 고유성에 구애받지 않도록 한다.

(5) 번역의 편의를 위한 기준

대부분의 한국학 사전 저본은 한국인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중문과 복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많은 경우 문맥으로 이해되는 주어를 생략하는 경향이 있고, 수동문과 능동문 등이 특별한 기준 없이 혼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많은 경우 한국학의 분야별 전문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한국학 전문 번역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반 번역가가 이 번역을 담당할 경우, 전문 용어의 이해조차 쉽지 않은 가운데, 생략된 문장 성분과 복잡한 문장 구조는 번역의 어려움을 가중시킬뿐더러, 오역의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열 과정에서 영어 번역이 수월하도록 문장 구조를 개선하고, 숨겨진 문장 성분을 살리며, 번역자가 판단하기 어렵거나 조사가 필요한 전문용어나 고유명사 등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통일된 영문 표기를 추가해 줄 필요가 있다.

2) 국문 원고 교열 실무 기준과 실제

(1) 정보를 다룰 때에는 표준독자의 시각과 관점, 배경 지식 및 관심 사안, 사회문화적 환경을 바탕으로 다룬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라는 표현은 '한국'으로 수정하고, 독자의 관점에서 부족한 정보는 보충한다.

> 예) [국문 1차 원고] 1896년 창간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 일간지.
> [국문교열] 1896년 4월에 창간된 한국 최초의 민간 일간 신문.

> 예) [국문 1차 원고]1926년 회동서관에서 간행된 한용운의 시집.
> [국문교열] 1926년 한국 서울의 출판사 회동서관에서 간행된 한용운의 시집.

(2) 명백히 업데이트가 필요한 팩트는 근거가 있는 한 업데이트를 하며,

표준독자의 시각에서 보충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본의 텍스트를 수정하거나 보강한다. 예를 들어 '한국어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표준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글'이라는 말을 넣어 의미를 보충하고, 그 표기가 갖는 맥락과 의의를 저본의 다른 항목 등에 있는 정보를 반영하여 보강한다.

예) [국문 1차 원고] 국문판과 영문판으로 구성되었으며, 격일간지로 출발해 일간지로 발전하였다.
[국문교열] 이 신문은 한자가 전혀 포함되지 않고 한글로만 표기한 한국어판과 영어판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어판은 한국인들의 독립 정신을 높이고 근대화 사상을 일깨우는 것을, 영어판은 외국인들에게 조선의 사정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발간되었다.

(3) 어휘와 문장은 원문에서 의도하는 정보 전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문장구조를 간결하게 하고, 되도록 불필요한 수식을 없애며, 필요한 경우 보충 정보를 추가한다. 예를 들어 한 문장이 중문과 복문으로 만연체를 이루어 이어질 경우, 문장을 나누어 번역과 이해가 용이하도록 한다. 또한 불필요하며 설명이 복잡한 용어는 삭제하거나 쉬운 말로 풀어 쓴다. 원문에 문장의 주어와 같은 문장성분이 생략되었을 경우, 번역자의 편의를 위해 영문의 보편적인 구조를 전제로 원문의 문맥과 의도에서 이를 찾아 넣는다.

예) [국문 1차 원고] 1884년(고종 21) 갑신정변 실패 후 일본을 거쳐 미국에 망명한 서재필은 미국에 들른 박영효(朴泳孝)로부터 대역부도죄(大逆不道罪)가 1895년 3월 1일자로 사면되었다는 사실과 정권을 장악한 개화파 동지들이 자신의 귀국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1895년 12월 26일 귀국하였다. 서재필과 유길준은 1896년 1월 하순에 새로운 신문사의 설립과 새 신문의 국문판 및 영문판을 동시에 3월 1일 창간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국문교열] 이 신문을 창간한 서재필은 외국의 간섭에 반대하고 국가의 근대화를 주장한 조선의 관리였다. 서재필은 1884년 중국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근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정치적 사건인 갑신정변을 주도했다가 실패했다. 이후 그는 미국에 망명해 있다가 1895년 귀국하여

한국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었던 유길준과 함께 신문 창간 작업을 주도했다. 서재필은 1896년에 조선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 최초의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을 창간했다.

(4) 한국어와 영어의 문장 구조, 관용구의 차이 등으로 원문의 뉘앙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일 때에는 내용의 구조나 전개 방식을 표준독자에 맞추어 바꾼다. 예를 들어 한글의 뜻을 한자로 풀어쓴 경우, 영미권 독자의 이해를 도우며 번역자의 편의를 위해 영어로 된 보충 정보로 바꾸어 쓴다.

예) [국문 1차 원고] 한자를 쓰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한자어도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어 쓰려고 노력하였으니 표제의 '아이들 보이'에서 '보이'도 '보다(覽)'의 어간에 명사화 접미사 '이'를 붙여 '읽을거리'를 나타내는 것 따위가 바로 그것이다.

[국문교열] 잡지의 이름인 '아이들보이'는 최남선이 한국어에서 '어린이들'을 뜻하는 '아이들'과 한국어 동사 '보다[see, watch, view, look, read]'에 명사형 접미사 '이'를 붙여 '읽을거리'를 뜻하게 한 '보이'를 합쳐 만든 말로, '어린이들의 읽을거리'라는 뜻이다.

예) [국문 1차 원고] 한용운(韓龍雲)의 속명(俗名)은 유천(裕穿)이고 법명(法名)은 용운(龍雲)이며 법호는 만해(萬海)이다.

[국문교열] 이 시집을 펴낸 한용운은 일제 강점기 시대 한국의 시인, 불교의 승려, 독립운동가였다. 성은 '한'이며, '용운'은 불교식 이름(Buddhist name)이다. 불교식 아호(Buddhist pseudonym)인 '만해'와 함께, 흔히 '만해 한용운'으로 불린다.

(5) 단순하고 비전문적인 용어와 명쾌하고 논리적인 문장을 사용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전문적인 용어나 개념어를 사용한다. 전문용어의 경우, 표준독자 수준에서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용어는 별도의 설명 없이 사용한다. 표준독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생소한 용어는 저본에 없더라도 덧붙여 상세히 설명하며, 일반적인 용어라도 특별한 의미로 사용될 때는 명확한 설명을 덧붙인다. 학술지나 전문서적에 더 적합할 특수용어와 약어 표현은 되도록 피한다. 예를 들어 '전교회장'의 경우, 단어뿐 아니라 문장

전체를 풀고 당시 상황에 대한 보충 정보를 넣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예) [국문 1차 원고]1934년 평양교구에서 창간하였다. 창간당시의 제호는『가톨릭 연구 강좌』로, 1933년 9월 평양교구에서 실시한 강습회에 참가했던 전교회장들이 강습회를 계속하기 위해 전도협회라는 후원회를 조직하였는데, 강사진들이 이 후원회의 재정적 도움을 받아 매달 20일에 50~90면의 A5판으로 발간하였다.

[국문교열]『가톨릭조선』은 1934년 천주교 평양교구에서 성서 해설과 천주교 교리 등을 널리 알려 포교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창간했다. 창간 전인 1933년 9월, 천주교 평양교구에서 대외적인 선교 활동을 담당했던 평신도 대표를 대상으로 한 강습회를 열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신자 공동체를 지도하고 본당 신부를 보좌하던 평신도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가톨릭 성당을 대신하여 산간 벽지에 개설되는 작은 예배 공간인 공소의 수는 늘어났으나 성직자의 수가 부족했던 당시 상황에서 이들은 천주교 전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1933년 실시한 강습회에 참가했던 지도자들이 강습회를 계속하기 위해 전도협회라는 후원회를 조직하고, 교리의 전파를 위한 잡지를 창간하기로 했다. 강사진들이 이 후원회의 재정적 도움을 받아 매달 20일에 50~90면의 A5판으로 발간했다.

6. 맺는 말

이 글은『한국 근대 간행물 영문 사전』의 편찬 과정을 바탕으로 영문 사전 편찬을 위한 국문 원고 교열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일반적인 번역 과정과 달리, 한국학에 대한 포괄적 의미의 영문 사전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국문 원고 교열의 의미가 간단하지 않음을 전제하고, 상위 개념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서 주요 쟁점을 점검해 보았다.

우선 한국학의 해외 소개라는 맥락에서, 이 영문 사전의 이용자로 상정한 해외 한국학 전공자와 연구자의 배경 지식을 살펴보았다. 거시적으로 볼 때, 영미권에서는 중국학과 일본학 중심으로 구축되어 온 동아시아의 학문적 지형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며, 한국학의 해외 소개는 아직 담론적, 제도적으로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한국학의 번역과

관련한 상위 개념으로 '문화번역' 담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문화권 사이의 정치적 위계를 극복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으로 이해되었다. 이와 함께 번역을 전제로 한 교열에서 독창성과 독자성이 중요한 문학 작품의 경우와 학술 차원의 경우를 달리 볼 필요가 있음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 근대 간행물 영문 사전』에서는 집필과 윤문, 번역과 교정 등 편찬의 모든 과정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할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미국에서 대학 학부에 재학 중이며, 한국학에 관심이 있고, 한국어의 해득은 초급 정도인 연구자'를 '표준독자'로 상정했으며, 국문 교열에 있어 저본에 바탕을 두되 이용자의 문화를 배경으로 한국학에 대한 수용이 가능하도록 창조적인 변용과 보강이 필요함을 사례를 들어서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문헌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은 영문 번역자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표준독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함께 효율적인 편찬을 위해 새롭게 설정된 국문 원고 교열이라는 단계가 어떻게 기능하고 있음을 설명하고자 했다. 이 연구에 포함하지 못한, 한국학의 영문 번역을 위한 교열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교열자의 작업 과정에 대한 더 구체적인 분석은 이후 연구의 과제로 삼으려 한다. 이에 더하여 개념적으로, 또 실무적으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김정연,「출판 교정·교열에 의한 번역내용 변화의 사례연구」,『통번역학연구』17-3, 한국외대 통번역연구소, 2013, 81-113면.
김준길,「한국학의 국제적 소통에 관한 한 연구 - 한국의 역사와 문화 관련 용어 및 개념의 영어 표현을 중심으로」,『국제한국학연구』,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2010, 51-91면.
김효중,『번역학』, 민음사, 1998.
도원영 외,「해외 한국학 전공자를 위한 한국학 영문 사전 편찬의 쟁점」,『어문논집』96, 민족어문학회, 2022, 175-196면.
라데군디스 슈톨체, 임우영 외 역,『번역이론 입문』, 한국외대 출판부, 2011.
양창진,「한국학 자료 번역 도구로서의 한국학 영문 용어 용례 DB구축 연구」,『인문콘텐츠』16, 인문콘텐츠학회, 2009, 307-335면.
윤조원,「번역자의 책무—발터 벤야민과 문화번역」,『영어영문학』57-2, 한국영어영문학회, 2011, 217-235면.
이상빈,「문화번역(cultural translation)에 관한 이론적 고찰: 호미 바바를 중심으로」,『통역과 번역』13-2, 한국통역번역학회, 2011, 93-108면.
임명걸·이해영,「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번역과 담론 형성 연구: 중국의 '학술담론 세계화' 전략과의 비교를 통하여」,『어문학』, 한국어문학회, 2015, 303-330면.
장경식,「백과사전의 독자」,『한국사전학회 제35차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사전학회, 2019, 25-42면.
장애리,「통번역을 위한 문화능력—이론연구를 중심으로」,『번역학연구』12-4, 한국번역학회, 2011, 169-204면.
전성운,「한국 고전문학의 세계화 방안—고전문학의 번역과 그 방법을 중심으로」,『어문연구』, 어문연구학회, 2016, 113-142면.
정호정,『제대로 된 통역·번역의 이해』, 한국문화사, 2016.
하트만, 서태길 외 역,「서문」,『사전 편찬의 원리와 실제』, 제이앤씨, 2008.
한도현,「한국학의 영문번역시스템과 개선 방향」,『통번역학연구』14-1, 한국외대 통번역연구소, 2010, 199-224면

【Abstract】

The study for the definition and actual process of editing Korean manuscripts for compiling an English Edition of Korean Studies Encyclopedia

Jang, Kyungsik*

This study was focused to discuss the definition and actual process of Korean manuscript editing based on the case of compilation of English edition of *Korean Modern Publications Encyclopedia.*

When translating an existing Korean studies encyclopedia for foreigners,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items should be easily released based on the perspective of a foreign reader with limited background knowledge on Korea, and an explanation of major proper nouns should be added. Sentence structure needs to be changed to facilitate translation into English. Responsible for this process is the stage of editing Korean manuscripts.

In this study, we looked at the relevant information to be referred to in the Korean manuscript editing stage, which was newly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compilation stage, and summarized how the Korean manuscript editing was implemented.

First, I looked at the background knowledge of overseas Korean studies majors and researchers who were assumed to be the main readers of the *Korean Modern Publications Encyclopedia.*

Regarding the issue of correspondence with the original text, 'cultural translation', which is emerging as a higher-level concept related to translation in Korean studies, is reviewed, accepted as a conceptual tool to overcome the political hierarchy between cultures, and adheres to the sentences of the original Korean text, it was confirmed that active proofreading is necessary according to the judgment of the editor.

Based on this academic background, the *Korean Modern Publications Encyclopedia* sets the level of standard readers in order to establish standards to be applied consistently in all processes of compilation, such as writing and profiling, translation, and proofreading, and while based on this, the need for creative transformation to accommodate Korean studies based on the cultural background of readers was presented by citing examples.

Keywords: Korean studies, encyclopedia, foreign readers, English encyclopedia of Korean studies, dictionary compilation, manuscript editing.

접수일: 2023.03.31. || 심사일: 2023.04.17. || 게재확정일: 2023.05.20.

* Director, The Korean Inst. for Encyclopedic Knowledge.